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 허물없이 성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라는 등 개방적인 성교육방안을 전문가들이 제시하였다.

최근, 청소년 문제를 주로 다루는 서울기독교청년회(YMCA), 한국임상성학회, 대한가족계획

계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하면서 학력고사 이후의 공백을 이용, 부모들이 과감하게 성교육의 주체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 박사가 부모입장에서 성관계를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성관계를 꼭 가져

주장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 충고보다 자녀에게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설명이다.

청소년 상담연구소 이명용 소장은 "청소년 전화상담의 80% 이상이 성문제를 상담해 올 정도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본격적인 교육의 실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가정 밖 한 발자국만 나가면 음란영화·비디오·주간지·만화 등이 범람, 청소년들이 기형적인 성관계를 정상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우리 아이만은 실마...' '요새 애들은 다 조숙하지만 우리애는 너무 순진해서...'라는 생각을 버리고 성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어 무엇이 왜곡된 것인가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

러주는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특히 윤리나 도덕으로 설교하려 들면 오히려 교육효과가 감소되므로 과감하게 성기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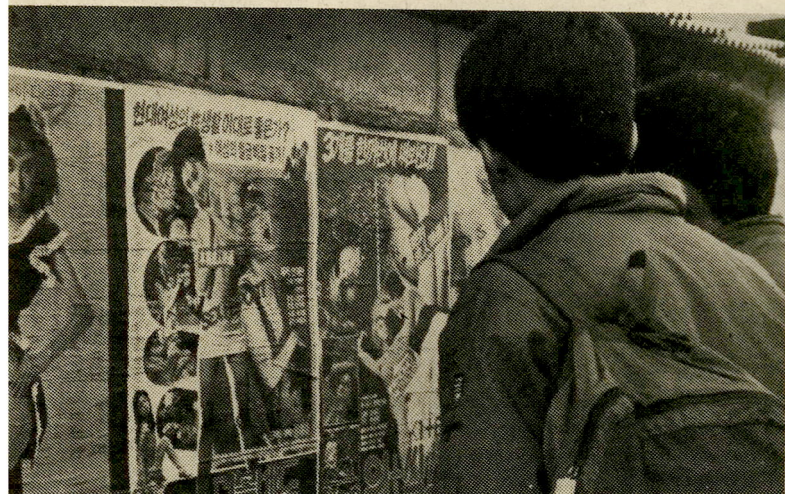
한편 자녀에게 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부모 스스로 성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관계의 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성 기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강좌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미경 기자〉

청소년
성문제

부모가 먼저 얘기하라

8.11.25 '학부모를 위한 성교육 강좌'서 강조



청소년의 성에 대한 관심은 부모들의 어림짐작을 훨씬 넘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입학력고사 후 공허감 감싸줘야

"안된다"보다 '올바른 성' 일러주길

협회, 흥사단 등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잇따라 청소년 성교육강좌를 마련하고 부모들의 자녀 성교육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기독교청년회(YMCA)와 한국임상성학회가 지난 17일 공동으로 연 '학부모를 위한 성교육강좌'에서 정동철(정동철 신경정신과)박사는 "학력고사가 끝난 뒤 공부 이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못하고 살아온 청소년들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성관

야 할 때는 콘돔을 사용할 것 △최소한 비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것을 권장하자 학부모들은 서구식 발상이 아니냐는 반발을 보였다.

그러나 정 박사는 "콘돔사용은 성병이나 임신방지 차원만이 아니라 어느정도 심리적·생리적 준비가 된 상태를 전제, 서로가 책임질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모가 얘기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청소년 성교육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